

◀하나님! 나의 하나님▶ 혼자 있을 때 해보는 것

김 성 국

교회 사무실 바닥에 누워 낮잠자기
 번기에 빠진 칫솔 꺼내 이빨 닦기
 맞춰놓은 안경 써 보고 웃었다 찡그렸다 표정짓기
 마음에 드는 시 읽으며 가슴살레기
 열심히 다트하며 점수 메기기
 찬송가 마지막 부분 천천히 크게 부른 후 혼자 박수치기
 새벽, 교회마당에 나가 별 쳐다보기
 읽던 책 덮어놓고 발톱깎기
 어머니 보고 싶다는 생각하기
 군대 다녀온 지 몇 해인지 헤아려보기
 침침해진 눈, MT Eden 에 올라가 먼 곳 쳐다보기
 점점 빠지는 머리, 맛사지 한다며 빗으로 두드리기
 뱃살 때문에 오늘 저녁을 먹어야 할지 고민하기
 편편한 뒗 통수, 거울 두개로 비쳐보고 실망하기
 발톱 무좀 치료법 인터넷에서 찾아보기

그러다 주일날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서면

한 주간 내내

성경 많이 보고 기도만 많이 한 것처럼 보여지지요.



◀학창시절 영화▶ 포세이돈 어드벤처

뉴욕에서 아테네로 향하던 호화여객선 포세이돈호는 해저 지진을 만나 전복됩니다. 파티중이던 3백여 승객들은 우왕좌왕하다가 대부분 죽지만 스콧 목사의 주장에 따라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엔진실로 향하는 용감한 자만이 결국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에 “어드벤처”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나 봅니다.
 주제곡 “The Morning After”는 아카데미 주제곡상을 받을 만큼 훌륭했습니다. “There’s got to be a morning after If we can hold on through the night 이 밤을 견뎌낼 수 있다면 거기엔 아침이 있습니다” 지금도 노래를 들게 될 때면 죽음의 순간을 피를 나눈 남매의 사랑으로 의지하던 두 사람이 떠 오릅니다.

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예수! 돈으로 살 수 없어 사랑으로 얻었다” (요13:35)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성감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6권 49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5년 11월 27일
☎ 369- 5077.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www.calvary.org.nz		

그래, 사흘간이다



어느 마을에 늘 행복한 할머니가 한 분 살았습니다.
 그 할머니는 배운 것이 별로 없고 살림도 가난하기는 했지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늘 밝고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만 만나면 덩달아 즐거워지고 행복해졌습니다.
 하루는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그토록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이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나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한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요.

그래서 나도 어려움이 닥치면

‘그래, 사흘이다. 사흘만 참고 견디자.’

그렇게 생각하며 참다보면 어려움들이 지나가지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하며 걸었던 사흘 길,

모리아 산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듯이,

히스기야가 병이 나아 사흘 만에 성전에 올라갔듯이,

요나가 사흘 만에 고기 뱃속에서 토해져 나왔듯이,

에스더와 백성들이 사흘 기도로 승리했듯이,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어려움은 사흘간입니다.

삶의 짐이 무겁게 느껴지고

생활이 힘들고 곤고하다면

주변이 어둡고 절벽 같다면

이렇게 외쳐봅시다.

“그래, 딱 사흘간이다.”

◀말씀따라 행하기▶

승리는
 강한자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의 것이다.

◀인품따라 행하기▶

선물을 품위있고
 정중하게 받는 것은
 보답할 것이 없더라도
 보답하는 셈이 된다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 광 송 Gloria	Calvary	다 같 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36장	다 같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1 (시 1편)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543장	
기 도 Pray		박일영 안수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창세기1:26-31. 2:4-7	인 도 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 교 Sermon	하나님 이야기(2) 하나님 형상대로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404장	다 같 이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 본당 뒷편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11/12월 예배위원◆

일자	기 도	헌금위원	가족찬송	안내
27	박일영	백제성		장현중 이광희
4	이광희	변민강		
11	이규임	손영희	김석욱.김윤자	노은숙 정희자
18	이재영	신미숙	박완배.전미경	
25	장현중	양경배	김홍구.윤경례	

◆12월의 교회력◆

	주 일	예배와 모임
4		구역예배(9):종강
11		믿음의어머니기도회(13)
18		성탄축하의밤(24)
25	성탄예배	세례식
31		송구영신예배(31):11:30

2005년 교회생활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1. 성경 1독만 하기(하나님 사랑)	
2. 전도하지말고 대신 친절하자(이웃 사랑)	*여러교회를 다녀 본 후 결정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3. 처음 만난 날 처럼(교우사랑)	
주일예배: 아동, 학생: 낮 12시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5	청년부: 토 오후 2시

- 교우소식
<등록> 김희경, 오영숙 성도(지호.지원). 김후종(부친)
☎ 268-8442 59 Charles Prevost Dr. The Gardens
<반주자> 김유나 자매: 학업준비를 위해 1월말까지 한국방문.
*긴 여름방학, 연말을 맞아 여러 교우들께서 고국을 방문하십니다. 평안한 방문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 오늘은 "이삭줍기" 드리는 주일입니다.
*Silver Coin이 사랑을 품어 금 같은 가치로 어린 생명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 각 선교회의 선교헌금으로 축구공, 공기펌프 각 30개씩을 바누아투 신학교 졸업생 선물로 지난주간에 보냈습니다. 공 하나씩 들고 산골에 들어 갈 바누아투 현지인 목회자들의 목회에 아주 큰 힘이 될 것입니다.
- "성탄축하의 밤" <24일 저녁 6시, Pump House>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신 날,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순진해 질수록 더 행복한 날입니다. 올 해는 각 교회에서 한 순서씩 준비하여 함께 웃으며 행복한 성탄의 밤을 꾸며 주십시오.
- 선교회 총회
*12월을 맞아 각 교회에서는 총회를 가져 주십시오.
장소가 협소하여 불편하실 것입니다. 12월 한달간 1주 2 교회씩 유아실과 교회당 앞쪽을 이용하여 총회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 2006년도 교회자원봉사
*다음주에 배부되는 2006년 교회자원봉사 지원서를 통해 행복한 교회생활이 되도록 자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착한 시인들▶

아름마라고 부르지 마라

김경훈

아직은 꽃이고 싶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깊은 밤 빛소리에 흐느끼는
가슴으로 살고 싶다
귀뚜라미 찾아오는 달밤이면
한 권의 시집을 들고
달빛 아래 녹아드는 촉촉한 그리움에 젖고
가끔은 잊혀진 사랑을 기억해내는
아름다운 여인이고 싶다
아름마라고 부르지마라
꽃보다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
저무는 중년을 멋지게 살고 싶어하는
여인이라고 불러다오

12월을 맞는 주간입니다. 누구나 열어진 삶의 여정 앞에서 겸허해 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더 두근거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더 아름답고 싶습니다. 젊음이들은 가져볼 수 없는 깊은 아름다움과 흐릿한 그리움, 젊은이들은 아픈 현실에 울지만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아름다워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또 지나가는 한해가 아니라 더 진지해진 삶입니다.